

A+U



10월호에서는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거점으로 22명의 멤버가 활약중인 WEST 8, 추상작품을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데코이(Decoi), 세네갈 태생의 건축가 나딤 카람(Nadim Karam), 네덜란드의 건축가 솔드 스테르즈, 영국의 팀 맥팔렌 등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 프랑스 국립도서관(1988~1997)
- 설계계기단계의 작품해설-도미니크 페로: 건물이 아닌 장소로서, 파리의 광장으로, 프랑스의 도서관으로서, 상징적인 장소로서, 마법의 장소로서, 도시적 장소로서, 독서를 위한 장소로서, 확장가능한 장소로서의 도서관. 1989.6
- 인터뷰-오딜 필리온(Odile Fillion)과 도미니크 페로가 1994년 12월 9일 파리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WEST8

- Eastern Scheldt 방파제 주변의 환경계획: (네덜란드 질랜드(Jeeland)/ 1991~1992): 모래 저장소를 평평하게 고르고 넓은 평원으로 만들어서 백색·흑색의 조개껍질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깔아 인공성을 강조했다.
- VSB사옥의 정원과 공동다리(네덜란드 유타레히트(Utrecht)/1994~1995): 현대적인 큰 빌딩과 자연공원을 조화시키는 역할의 정원과 곡선을 그리며 정원위에 걸려 있는 공동모양의 다리. 다리 난간의 한쪽은 목재 벤치로 되어 있다.

• Schouwburg광장(네덜란드 로테르담/1995): 물리적인 한계에 있는 거리 풍경과 그 안의 무대와 같은 광장의 대조.

• Schiphol 공항 환경계획(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92~1996): 주변에 자작나무와 꽃을 심고, 양봉상자를 놓아 두어 벌들이 꿀을 구하러 오도록 한다.

• 암스테르담 동(東)항구 개발계획. 보르네오/스포르텐부르크(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95~1996): 저층주택이 늘어난 가운데 3개의 커다란 블록을 조각품으로 배치했다.

• 논문-한스 반 다이크(Hans Van Dijk)/개척된 공간

■데코이(Decoi)

• Ledoux의 그림자(프랑스 그루노블/1993):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이라는 변화하

는 개념을 나타내는 오브제이다.

• 이더(Ether)/아이(I)(스위스 제네바 1995): 춤추는 다섯사람의 손동작을 복잡한 공간연속의 모양으로 배치했다.

• Schlaf Apnia(1996.9. / 완성예정): 반복되는 확장과 압축, 횡경막의 움직임 등 인간의 폐를 추상작품화 한 것이다.

■나딤 카람(Nadim Karam)

• The Carrier(레바논 베이루트/1995): 특정 부지와 도시를 위해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도시에 설치미술을 행하는 퍼포먼스 건축이다.

■솔드 스테르즈(Sjoerd soeters)

• 솔드 스테르즈 건축사무소별관/아파트(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91~1994): 네덜란드 고전양식의 아파트에 별관을 세웠다.

• Kerkstraat의 솔드 스테르즈 건축사무소(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86~1990): 에나멜로 마무리된 골진 알루미늄관의 외벽과 윗부분에 배내기 장식을 한 보기 드문 정면 외관이다.

• Omval의 사회문화센터(네덜란드 디멘/1989~1991): 건물의 사회적 목적을 나타내는 다크 블루의 판넬로 정면 외관을 완성했다.

• Mexxa 사무실(독일 코르넨브로이히/1988~1989)

• 서커스 Zandvoort(네덜란드 잔드포르트/1986~1990): 조형적 건축의 놀이시설.

■논문(한스 이벨링스): 융통성 있는 대답(Flexible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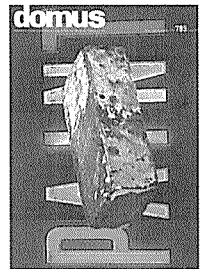
■연재-유리 구조체(팀 맥팔렌): 유리의 수평면에 있어서의 구조적 사용에서 수직면의 하중을 받는 패널로 전개되어 온 유리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서 생겨난 형태에 대해 말한다.

본지에서는 해외 건축문화의 흐름을 조망해보고, 독자재현의 해외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번호부터 A+U, DOMUS,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Process, 건축문화,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등 대표적인 해외건축잡지들의 내용을 요약, 소개 한다.

지면 관계상 건축물의 사진 등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고 그 달의 Issue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아울러 「Architectural Record」와 「Architecture」는 편집자감일 까지 책자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소개하지 못하고, 다음호에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Domus



9월호에서는 과학정보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도시 생활양식의 변화를 맞이하여 건축과 정보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의 Giuseppe Terragni의 밀라노 전시회 소식, 최신 가상현실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 그리고 끝으로 시카고, 일리노이즈 등지의 주요 건축물을 설계한 루이스 설리반 등이 다루어졌다.

■사실 및 기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전반이 변화하고 이것은 후기 산업사회의 다른 측면들과 함께 도시 거주자들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건축과 정보에 대해 이번호에서 알

아볼 것이다.

■행사—Giuseppe Terragni의 밀라노 전시회

이탈리아 30년대 건축의 거장 Terragni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전시회가 밀라노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30년대 대표적 작품인 Novocomun 건물과 Casa del Fasico house의 모형과 자료 등을 비롯해 그의 수많은 스케치와 건물사진, 그리고 그의 자화상을 비롯해 그가 그린 그림 몇점이 전시되었다.

■기획—정보와 건축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 Utrecht(유트레흐트)대학 교직원 건물: 네덜란드 전후 포스트 모던주의 건축사인 Mecahoo에서 시공한 이 건물은 학생 5000명 교직원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건물을 4개 구역으로 나누는 3개의 작은 실내정원과 간이적인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복도의 넓은 공간이 특색이다.

• 란트젠트랄 은행 본부, 라이프치히: 이 건물은 외양은 결코 눈에 띄지 않으나 작은 도시(a piece of city)를 이루고 있다. 컴퓨터 조절 채광과 대리석, 마호가니로 화려하게 장식된 내부는 외부의 수수함을 충분히 커버한다.

• 파도바의 신축 법정 빌딩: 이 건물은 84년도에 착공하여 회사사정으로 인해 88년과 89년사이, 92년과 93년 사이에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다.

• 외양은 원형경계장과도 같아 보인다.

• 밀라노의 인쇄 박물관 사무실 건물: 서로 떨어져 있는 두개의 종이 작은 정원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이다. 얼핏보면 단조롭게 보이지만 변화무쌍한 도시적 감각을 나타낸다.

• Salore de Mobile, 밀라노: 이 전시회에는 가구뿐 아니라 각종의 조명기구, 인테리어 악세서리 등이 전시되었다.

• PDA—개인용 전자 비서: 상품명 Newton인 이 초소형 노트북은 화면에 직접 펜으로 쓰는 방식이며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해 전화, 팩스는 물론 인터넷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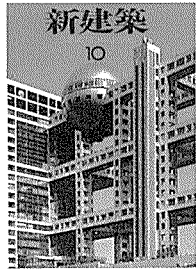
• 종합성의 미학—가상 현실: Smdk라 이름붙여진 이 기계는 보통의 가상현실 체험장치와는 달리 인터넷망으로부터 사운드 파일을 받아들이며 사용자가 눈앞의 가상현실을 헤매고 다니며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설리반과 시카고

루이스 헨리 설리반은 MIT를 졸업한 후 W. Le Barron Jenny 사를 시작으로 건축업에 몸담으면서 시카고, 오하이오 등지의 많은 은행과 극장 등을 설계했고 또한 고층

빌딩을 시카고에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신건축



10월호에서는 지난 8월22일에 있었던 '국립국회도서관 칸사이관'(가칭) 건축설계경계결과 발표를 신고 있다. 최우수작에는 陶器二三雄씨의 침상원(沈床園)이 선정되었다. 특별 기사로는 '부운 돔(浮雲 DOME)' 설계와 10월13일까지 동경 미나토구 건축회관에서 열렸던 '池原義郎 작품전'을 소개한다.

■속보

• 국립국회도서관 칸사이관(가칭) 건축설계경계결과발표: 최우수작은 陶器二三雄씨의 침상원(沈床園)

■건축논단

• 조직이라는 것과 건축이라는 것—櫻井清: 조직사무소의 전략

■작품

• 후지TV본사 빌딩: 동경 미나토구. 설계—丹下健三·도시·건축설계연구소

• 캐나다와 시립 이즈미 도서관: 설계—岡田新—설계사무소·釣谷건축사무소 공동업체

• 하루나마치 종합문화회관: 군마현. 설계—岡田新—설계사무소.

• 쿠로타키회관+쿠로타키야외무대: 나라현. 설계—渡邊豊和건축공방

• 카미유베츠 고적 박물관: 홋카이도. 설계—渡邊豊和+京都조형예술대학디자인과.

• 시키마 미술관: 오키나와현. 설계—眞喜志好/건축연구실DAP.

• 동경토시마 합동청사: 설계—大江匡/PLANTEC

• 카미즈에 진료소·보건센터: 오이타현. 설계—黒川哲郎+디자인리그.

• 타카마츠대학 경영학부: 카가와현. 설계—山本忠司건축종합연구소.

• 문경학원 시마다이시코기념관: 동경. 설계—村野·모리건축사무소.

• 아키타공립미술공예단지대학+부속고등학교: 아키타현. 설계—MHS松田平田.

• 아이즈대학: 후쿠시마현. 설계—후쿠시마현 총무부현립대학정비실 岡설계.

• 국민호텔 쉐라톤 쿠히리: 치바현. 설계—宮本忠長건축설계사무소.

• ATLAS오기쿠보의 분양집합주택: 동경. 설계—渡邊誠/Architec office.

• 토다정형의과 위장과 의원: 사이타마현. 설계—西森陸雄/Architec office.

• 토야마적십자 병원: 토야마현. 설계—일본설계

• ENIX본사 빌딩: 동경 시부야. 설계—일본설계

• 그린 오아시스(수영장): 아마구치현. 설계—仲子盛進종합환경디자인.

• 치바 국제 종합 수영장: 치바현. 설계—梓설계.

■프로젝트

• 신세기통천각(밀레니엄 미디어게이트): 오오사카. 기획·설계—渡邊豊和+교토조형예술대학디자인과

■특별기사

• DOME FOR SALE—건축생산 시스템의 도전—(高橋龍一·内田祥士)

• 부운 돔(浮雲DOM): 설계—부운 돔 연구개발그룹. 초경량, 자연채광, Low Cost의 환경순응형 돔. 각종 이벤트 광장과 스포츠 시설, 대규모 식물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옥외시설에 큰 지붕으로 사용되며, 천연잔디의 전천후형 축구 경기장 건설도 가능하다.

• 池原義郎작품전—대기와 자율성: 10월13일까지 동경미나토구 건축회관에서 개최.

□ 이바라키현청사계획안 1993.

□ 카메오카시 중앙평생교육센터 1993.

□ 쿠마타니시 제2문화센터 1994.

□ 토야마현 종합복지사회관 1995.

□ 사카타시민미술관 1996.

The Architectural Review

10월호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도됨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Sustainable Architecture)'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그의 런던 및 도로 등지의 유명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종이건축으로 난민캠프를 건축하는 건축가 시게루 반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다루어진다.

■ 푸른 빛—편집자 칼럼

유럽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이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된다. 점차 환경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변호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들에 대해 알아본다.

■ 디자인 리뷰

-종이도시

시게루 반(Shigeru Ban)은 지난 10년간 종이를 이용한 건축을 시도해 왔다. 이번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고베에서 그는 타카토리 성당과 수많은 난민 캠프를 복원하는데 있어 그의 기술을 사용하였다. 반은 현대 나이로비 대학에서 진흙을 사용하는 아프리카식 건축과 자신이 기술을 혼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 이슈—Sustainable Architecture

이번 이슈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에 대해 다룬다.

- 켈켄키르켄의 과학공원—유리 아케이드 : 이 건물은 과학공원 내의 300m 짜리 유리 아케이드로 인공호수에 인접해 있으며 남쪽 벽면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다. 키슬러와 동업자들이 제작한 이 건물은 7천만 마르크가 소요되어 작년에 완공되었으며, 내부공간은 상가나 전시회 등에 활용된다. 지붕의 태양전지판과 함께 이 창은 호수에 인접한 아래층의 오픈으로 시원한 바람을 받아들여 냉방에 기여할 수 있어 에너지를 크게 절감한다. 이 건물은 유럽의 3개 주요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짐바브웨, 종합 상가 건물 : 이 건물은 두터운 외벽과 그늘을 만들어 주는 차양모양의 발코니로 인하여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층과 층 사이의 빈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 에너지를 기존 건축물의 20분의 1 정도 밖에 소모하지 않는다. 내부의 냉방효과는 뛰어나 상가에서도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프랑크 푸르트, 학교 신축—피터휴브너 : 오펜발트슈레 사립기숙학교의 신축에 있어 제작자 피터 휴브너는 학생들을 동참시켰다. 전망이 좋은 언덕 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베지 않고 그 나무를 감싸안은 형태로 지어야 했다. 뿌리를 헤치지 않기 위해 두개의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그 위에 골격을 형성해 세워진 구조이다. 해설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우주선 모양의 청년회관—피터휴브너 : UFO를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우주선 같은 둥그런 지붕에 그 중심은 태양의 각도

에 따라 회전할 수 있는 온실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내부의 장식이나 벽면은 그 지역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했다.

- 슈투트가르트 유치원—피터휴브너 :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탐험할 여지를 남겨주는 이 건물은 아이들의 크기에 맞는 2.7m 짜리 모듈이 쌓아놓은 새장처럼 조합되어 있고 그 뒤에 '보통' 모양의 사무실 건물이 붙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단순한 견고함과 규율보다는 아이들의 자아를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파리 고가도 개조공사 : Bastille 고가도는 나폴레옹3세때 파리시 개발계획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1969년도에 폐쇄되었다가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재정비 시도에 의해 교각 사이에 난립한 상가를 정비하고 아치부본도 새롭게 보강하여 파리 시민과 관광객 모두로부터 성공적인 개조라는 평을 듣고 있다.

- 스위스 Biel(빌)의 아파트—LOG ID사 : 시공사인 LOG ID는 건축가뿐 아니라 식물학자, 의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회사다. 이 아파트는 시외곽에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의 열이 달아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온실이나 생활공간으로 쓰이는 전면에 배치된 온실이 특징이다. LOG ID사는 최초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시도한 회사로 유명하다. 부유층 취향의 건물이다.

- 광고 대행사—프랑크 푸르트 : 2천만 마르크가 소요된 이 건물공사는 기존의 건축물보다 건축비는 더 들었지만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하에 건설되었다. 북쪽 벽면은 높이 29.6m, 길이 66.6m, 폭 2.8m 짜리의 온실이 붙어 있는데 온도보온과 방음효과를 가지며 입주자의 취향에 맞는 시설 또한 이 건물의 특징중 하나이다.

- EC 환경 연구소—이탈리아 베싸 : EC의 환경문제연구의 중심치고는 에너지 관리면에서 너무도 비효율적이어서 93년도에 개조안을 공모했는데 건물의 위에 얇은 침묵으로 만든 차양(블라인드)을 설치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가을에 낙엽이 위에 쌓이는 문제만 제거하면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다.

- 고층 전경 말레이시아의 오피스 빌딩—메나라 부다야, 센트럴 플라자, 메나 : Umno빌딩들은 켄 영이라는(Ken yeang) 건축가의 시리즈물이다. 각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면서 개성을 지니는 건물들이다. Lift Core, 실내의 자연적 환기, 그리고 전면 유리로 된 북쪽벽 등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실례이다.

■ 비평

허버트 드 크로닌 해스팅스(Hubert de Cronin Hastings)를 기리며

그는 본지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50년간 수행했고 그의 재임기간 중에는 가장 뛰어난 건축비평가와 학자들이 본지와 함께 했었다. 그는 Architectural Review 창립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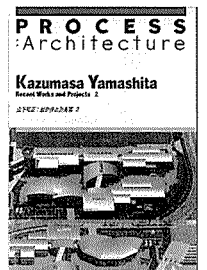
■ 인테리어

- 레스토랑 내부 디자인 : 프랑스 외무부 직원 레스토랑은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과일나무 정원을 가졌으며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20m 길이의 유리벽은 정원과 실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지 않는다.

- 런던 Avenue 레스토랑 : 고급 음식점들이 밀집한 곳에 있는 이 곳은 길게 이어지는 내부가 은은한 조형이 흰벽과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 지하 스시 레스토랑—도쿄 :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음식점의 윗부분은 맞출이 묶인 기둥과 어우러진 빗살무늬 천정이 우산처럼 보인다. 아래층의 각 방에 있는 것은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다.

Process



10월호에서는 일본의 현대 건축가 야마시타 카즈마사를 소개한다. 일반적인 일본적 사상

습관을 비판하고, 건축의 사회성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제공하며, 자연, 도시, 환경의 조화를 꾀하는 야마시타의 최근작과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실고 있다.

■ 야마시타 카즈마사의 최근작과 계획안

■ 논문

- 세기말에 건축과 환경을 생각한다.
- 「단위」와 「건축」 사이—우에다 마코토

■ 최근작

- 아비코시립, 새(鳥)박물관 1989 : 디자인컨테스트 참가 입상작이다. (치바 현 아비코시)

- 「Libre다마」 레스토랑 1989 : 최대 16m의 천정 높이를 갖는 반구 돔에 객석을 설치했다. (동경 다마시)

- 카와우치무라 타카야마(高山)클럽 1989 : 마을의 집회, 영빈(迎賓)시설로 카와우치산(産) 목재, 석재 등을 사용했다. (후쿠시마 현 후타바군)

- A하우스 1990 : 3가구집합주택. Dry

Area, Sky-Light, 광정(光庭)의 수법을 도입해서 지하실의 주거성을 높였다. 동경 신주쿠 구)

• 하라주쿠의 오피스 빌딩 1990 : 그래픽적인 표층표현을, 선명한 파란색 자기(磁器)타일을 이용해서 건물의장에 시도했다. (도경 시부야 구)

• 피라미드 상업단지 : 록본기에 세워진 복합상업시설. (동경 미나토 구 1990)

• 이리에 저택 : 콤팩트형의 3세대 2가구 주거. (동경 세타가야 구 1992)

• 카키모토 산장 : 동경공업대학건축학과 산하연구소의 연구생들이 설계·감리했다. (1992)

• 타케네 마을, 호시노무라 회관 : GWF 목조공법을 채용하고, 원적외선복사 열난방판넬을 설치했다. (후쿠시마 현 1992)

• KW빌딩 : 동경도심의 주거와 사무실을 합친 병용(併用)건축이다. (동경 시부야 구 1992)

• 스즈메지마 영빈관 : 해변에 세워진 기업용 영빈관. 지붕은 천연 슬래트, 외벽은 돌로 완성했다. (치바현 이즈미 군 1992)

• 파크사이드 츠쿠바 마츠시로 : 분양용 집합주택. RC 벽구조인데, 외벽은 Composit공법을 사용해서 외부열을 차단했다. (1993)

• 옴니(Omny)빌딩 : 외장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 (동경 시부야 1993)

• 미하루(三春) 이와에(岩江)중학교 : 1996년 문교시설협회회장상 수상. (후쿠시마 현 타무라 군 1995)

• 멀티미디어 연구 센터 :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IPA)가 계획·건설. (나가노 현 마루코 1995)

• 인자이 시립 하라 초등학교 : '전원과 도시의 공생'이라는 개념의 도시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치바현 인자이시 1996)

• 캠프 플라자 : 동경 설계 사무소 의료보험 조합의 중심시설. (동경 시부야 1996)

• 아미티 오모리히가시 : 주택도시정비공단에 의한 시가지 개축 방식의 주택단지. (동경 오타 구 1996)

• 아마시타저택 인테리어 : 동경 시부야 구. (1982)

• 아마시타 별장 인테리어 : 후쿠시마 현 후타바군 (1989)

■ 계획안

• 아비코시 문화센터 : 복합문화시설로서 93년 시설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재정문제로 건설 중지되었다. (치바현 아비코시)

• 케이오테이산 본사 빌딩 : 1993년 디자인. (치바현 후나바시 시)

• 중국 해남성 해남광장 기본설계안 : 1994년 디자인.

• 사이타마 현립 근대문화관 및 오케가와 시민회관 : 1993년 디자인.

• 코우치 현립 오즈 고등학교 설계경쟁 응모안 : 1995년 디자인.

• 다마 뉴타운 16-C 가 : 1996년 디자인 집합주택단지.

• 다마 뉴타운 16-D 가 : 1996년 디자인

• 미하루 '카미사카마을' 개발 계획 : 1995년 디자인. 미하루의 다목적택 건설에 따른 댐호수 주변의 지역 개발 계획의 일환. (후쿠시마 현)

• 요코하마 시영 나세 제2주택 : 1996년 디자인. 129호의 집합주택단지. (카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 도시개발 설계경쟁 응모안 '사토야마 도시개발 계획안' : 1995년 디자인. (후쿠시마 현)

• 산림도시 카와우치 교원 개발계획 : 1988~95 기초연구. (후쿠시마 현)

• 우라야시 후나이리 거리 재정비 기본계획 : 1995년 계획. (치바현 우라야시)

■ 제품디자인

• 스테인레스판제 차양 '메타이브(Metaeve) : 1995년

• 접착공법에 의한 금속 건물 '메타베이스(Metabase) : 1995년

• 무크판(板) 테이블 "SADAKO" "KAYOKO" : 1992년

■ 건축문화

10월호는 창간 600호 기념 특집으로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 1887~1965)의 연보와 작품을 중심으로 한 그의 건축 세계를 실고 있다. 현대건축에 부활, 재생되고 있는 그의 건축이념과 형태를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근대양식에 미친 영향과 작품을 형태론적으로 고찰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근원으로서의 르코르뷔지에 : 그의 이념, 건축형태는 여러가지 형태로 현재에도 재생·부활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의 이념·

형태가 생성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한다.

• 르코르뷔지에 작품 연보

• 파리의 르코르뷔지에 안내-아마나 요시유키.

• 작품사진촬영-필립 류오(Philippe Ruault), 니시모리 슈우이치.

■ 논문

• 근대라는 나르시즘-타나카 준 : 기하학으로서의 건축의 기원, 이미지의 근대적 변용과 건축.

• 변형(Metamorphosis)-나카무라 켄이치.

• 자비로 공연된 수난극(Passion) 그리고 부활-오오시마 테츠조.

• 설계라는 '건축적 산책' -토미나가 유주르 : 르코르뷔지에 전 작품의 도면과 사진.

• '동방으로의 여행'과 르코르뷔지에-미야케 리이치.

• 유리 나라의 독신자-마츠우라 히사오 : 반(反)=장식적인 회화의 꿈.

• 연결의 문법·간격의 시(詩)-코바야시 야스오.

• 르코르뷔지에의 형태론적 재고-에치고지마 켄이치 : 원형적 상상력의 전개

• 르코르뷔지에를 순회하는 차들-요네다아키라

• 친절한 스팅크스-호리이 요시히로 : 친절한 스팅크스 혹은 '욕망의 애매한 대상', 스팅크스의 해부실험.

• '경사지면'이란 무엇인가?-오쿠다 신야.

• 네개의 '바보같은' 주택-프랑소와 샤란.

• 인터뷰-르코르뷔지에 독해의 근본적인 전환을 향해서-오카자키 켄지로 : 투명성, 볼륨 그리고 르코르뷔지에 이후...

• 루크에서 르코르뷔지에까지-이가라 시타로 : 마술적인 건축가들.

• 르코르뷔지에와 철(鐵)-아마나 요시유키.

• 지중해를 향해서-우자와 타카시 : 르코르뷔지에와 이탈리아 근대.

• 르코르뷔지에와 일본의 근대양식-에치고지마 켄이치 : 영향작품의 형태론적 고찰.

• 르코르뷔지에와 일본, 그리고 국립서양미술관 프로젝트-마츠쿠마 히로시.

